

農工의 未來像 定立을 위한 提言

邊 良 錫

(學會農地改良企劃委員長)



近間에 각 大學에서는 새로운 學科名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過去의 學科가 세분되거나 바뀌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學科가 탄생하기도 한다. 科學技術의 發達과 時代의 變遷에 따라 당연하게 느껴져오던 일이다. 最近에 서울大學校에서는 農科大學의 名稱을 農業生命科學大學으로 改稱하였다. 그동안 어떠한 변화들이 쌓여왔고 어떠한 미래 狀況에 대비키 위한 것인지는 세밀한 내용을 들어야 알겠지만 우선 大學의 명칭이 변경된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클뿐아니라 한편으로는 어떤 충격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農工分野가 현재까지는 農業의 範疇내에서 존재 의의가 있어왔고 發展되어 왔다는 傳統의인 思考觀念에서 볼때, 社會의 底邊에 어떤 큰 흐름의 물줄기를 접하였을때 느끼는 反彈感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農工分野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고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며 이러한 要因들은 어떻게 農工分野에 影響을 줄것인가 라고 自問해 보지 않을 수 없다.

80年代初 세계은행에서 韓國의 農業投資에 대한 分析報告를 한적이 있다. 그 核心은 쌀은 이미 自給水準에 도달하고 있고 더구나 國民食生活의 소비패턴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쌀의 消費水準은 현저히 줄어든 것이 예상되므로 지금까지의 生産基盤爲主의 直接投資方向은 轉換해야 한다는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로 인하여 國內에서는 쌀소비에 대한 論爭이 시작되었다. 이 논쟁에서 農政分野에서는 강열한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農政은 곧 쌀에 대한 것이고 營農改善이나 生産基盤造成을 통하여 쌀을 增産하는 것이 農政의 要諦라는 기존의 價値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60年代 중반 보리고개가 있었던 時代에 農業의 重要性을 切減하면서 全天候農業用水開發事業을 計劃하고 추진하던 세대들, 70年代에 農村近代化促進法과 農地擴大開發促進法을 탄생시키고 大單位農業綜合開發事業과 農地의 外연적 내연적 擴大를 신명나게(사명감으로) 추진하던 세대들, 長期間에 걸쳐 같은 事業을 惰性的으로 추진하던 세대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工分野에서는 그들이 이룩한 성과 즉 産業化 過程에서 農業部門이 食糧自給을 이루어냈고 農業部門에서 工業部門의 勞動力을 끊임없이 供給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産業化에 기여했다는 성과에는 도취되면서도 그 성과가 어느수준에 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評價가 부족하였고 農業 農工分野의 環境與件에 대한 分析이 未洽했었다고 할 수 있다. 10年 연속풍년 10年 연속 4천만석 突破라는 報道 그 자체가 事業의 성과를 의미한다. 豐足하지는 않지만 일상적 氣象에 대해서는 營農이 큰 影響을 받지 않는 狀態, 다소 氣候의 이상이 있더라도 克服이 되는 狀態에 이른 것이다. 農業投資方向에 대한 論議가

한창일때 農工人이면 한번쯤 생각해보았던 -옛날같이 氣象異變은 없을까, 그래서 政策立案者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할 순 없을까-라는 상황은, 그리고 다반사처럼 겪어왔던 旱害對策같은 상황은 흔하지 않게 된 것이다.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관심이 멀어지고 관심이 소홀해지면 다른 政策方向을 찾게되는 필연적인 變化過程을 경험하게 되었다.

投資方向轉換등에 관한 論爭은 여하튼 農政部門에서 쌀에 대한 전통적 사고에 變化를 가져왔다. 더욱이 農業과 非農業部門과의 성장격차로 인한 所得不均衡問題가 社會的課題로 대두되는 시점이었으므로 쌀의 증산과 가격지지만으로서는 더이상 농민의 소득을 劃期的으로 向上시키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게되는 동기가 되었다. 84年初 農漁村綜合對策이 發表되었으며 對策의 주요내용은 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한 農漁村工業團地開發과 農漁村所得源道路事業을 추진하고 農漁村의 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事業은 各地域의 호응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게 된다. 農工分野로서는 새로운 事業機會를 擴大하는 結果가 되었으나 새로운 事業에 대한 準備가 미리 마련되지 못한 때문에 施行初期에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새로운 事業이 진행되던 시점인 86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이 着手되었고 90年 完了目標로 그 윤곽이 밝혀지던 89년부터 農政 및 國政 전반에 걸쳐 또한차레 희오리 바람이 몰아쳐 오게 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지간에 農產物交易의 自由化폭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擴大되고 있고 그 構造가 脆弱한 韓國의 農業이 과연 존립할 수 있는가 하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던 시점에서 90年 4月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이 제정되고 또한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이 동시에 制定公布됐다. 對策의 核心은 農業의 開放化에 대해서 競爭力을 갖도록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農業이 있는 공간인 農村이 生産空間만이 아닌 生活空間으로서 就業機會와 소득의 다양화가 가능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우며 쾌적한 정주환경이 되도록하는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 위한 財政的保障과 實行機關에 대한 法的地位까지를 보장하고 나선 이러한 대책의 特徵을 農工分野側面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可視的인 技術爲主의 開發事業에서 社會科學的次元까지 그 領域이 넓혀진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事業들은 構造改善事業次元에서 農漁村聚落, 農漁村道路, 農漁村環境保全, 農漁村用水와 排水, 農漁村休養地, 農工團地, 農業振興地域指定과 開發등 廣範圍할뿐아니라 尖端 科學分野까지 포용하는 사업을 추진케 된 것이다. 事業領域의 擴大와 더불어 새로운 事業들을 체계적이고 效率的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0年代에서 채 10年이 안되는 짧은 期間중에 農工分野에서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충격적으로 밀려 왔다고 할 수 있다. 産業化의 뒤안길에서 産業化의 礎石을 마련하면서 國民主食을 해결한 자랑스러움을 왜쳐보지도 못하고 産業化에 따른 변화의 격랑속에 파묻혀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農工分野가 얻은 경험과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機會를 맞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의 과정중에서 施策의 必要性과 對應論理의 제기는 항상 政策部處等 다른 部門에서 제기되어왔고 農工部門에서는 피동적이고 短期的이며 臨機應變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비존정립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事業領域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機會를 맞이하고 있다. 위기속에 발전이 있다는 논리와 일치되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보게된다. 다양한 事業은 자칫 보편화 -다시말하면 예산만 배정되면 아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擴散되고 있고 地方化時代와 맞물려 農漁村開發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게 稀釋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定住圈開發事業, 農漁村道路事業이 地方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에서 開發計劃을 樹立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변화의 흐름속에서 農工分野는 새로운 기회도 맞고 있으나 또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農工分野는 다가오는 급변하는 미래의 충격을 이겨내고 農漁村空間의 開發主體로서 지속적인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맞이할 未來는 어떠한 社會일 것인가. 엘빈 토플러는 산업사회에 이어 「제3의 파도」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사회와는 또다른 미지의 社會變化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60年代初까지 事務從事者와 서비스産業에 從事하는 사람이 노동자의 수를 넘어섰다고 하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별되던 産業社會의 變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300여년이 넘는 産業化過程을 韓國에서는 단지 몇십년의 짧은 기간에 이룩하고 있고 이미 서비스중심의 다양화社會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에 이르는 우리 社會는 완성되지 않은 산업화물결과 동시에 또다른 변혁을 수반하는 급변하는 사회로 발전되리라고 展望하고 있다.

“事前의 警告가 事前對備”라는 警句가 있다.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對備하는 시간은 더욱 빨라야 한다. 시속 30km의 느린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사는 出口豫告板이 출구에 붙어 있어도 출구차선으로 차를 몰아나가는데 支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車의 速度가 높아질수록 運轉士가 읽고 반응하는 시간이 必要하므로 출구예고판은 멀리 設置되어야 하는 바와같이 빠른속도로 돌진해 오는 미래에 對備키 위해서는 미리미리 準備하여야 할 일이 많다. 「예측정보가 주어지면 그 성과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다가오는 미래는 고도의 科學技術을 바탕으로 한 社會가 될 것이다. 農業에 있어서는 遺傳工學을 實用化하여 生産增大, 品質改良, 植物細胞工場 등 상상으려 여겼던 尖端技術이 현실화되고 기상, 土地의 制約을 받지 않는 工場式作物栽培도 普遍化 될 것이다. 技術分野에 있어서도 매우 민감하고 순간적인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사회적연계에 따라 尖端科學技術의 적극적인 적용과 農村空間에 맞는 특유한 科學技術 開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社會變革, 技術革新에 대한 예측가능한 준비를 해간다면 미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의 미래사회에서 農工分野가 農工空間의 開發主體로서 확고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信賴를 갖도록 각부문별로 지속적인 調查分析 研究를 통하여 끊임없는 예측을 圖謀하고 이를 統合하여 政策代案을 제시하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未來委員會”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정립하여야 될 것으로 思料된다. 정립된 비전에 따라 學問에서는 각부문에 필요한 人材를 양성하고 시행분야에서는 尖端技術適用을 준비하며 研究分野에서는 더욱 많은 情報를 蒐集分析전망하여 環境變化에 適應하도록 추진해가야 한다. 이와같이 農工人이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 노력할때 불확실한 미래는 신뢰성을 갖게 되고 農工分野는 農村空間의 開發主體로서의 위상이 確立될 것이다.